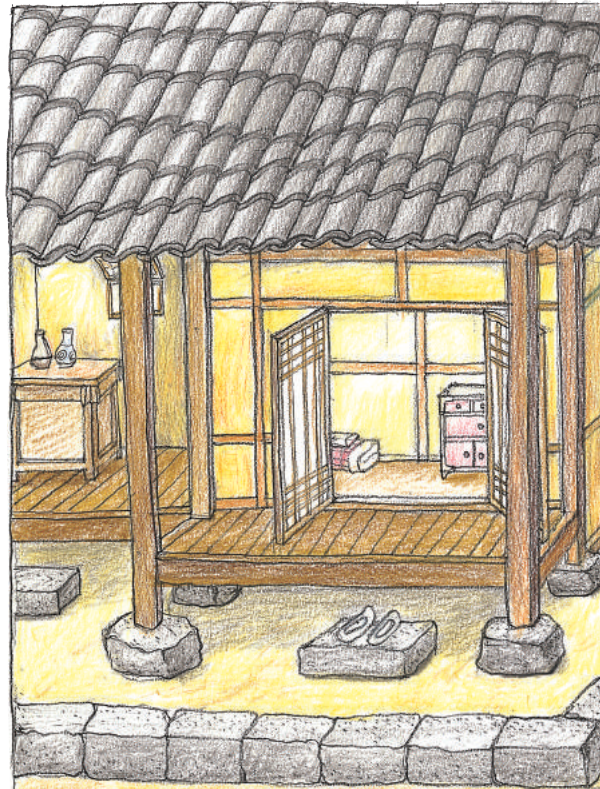


옛 즐거로운 가정 생활



똑딱똑딱~

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멋진 집을
만들어요. 나무로 집의 기둥을
세우고 황토로 벽과 바닥을 발라
따뜻한 집을 만들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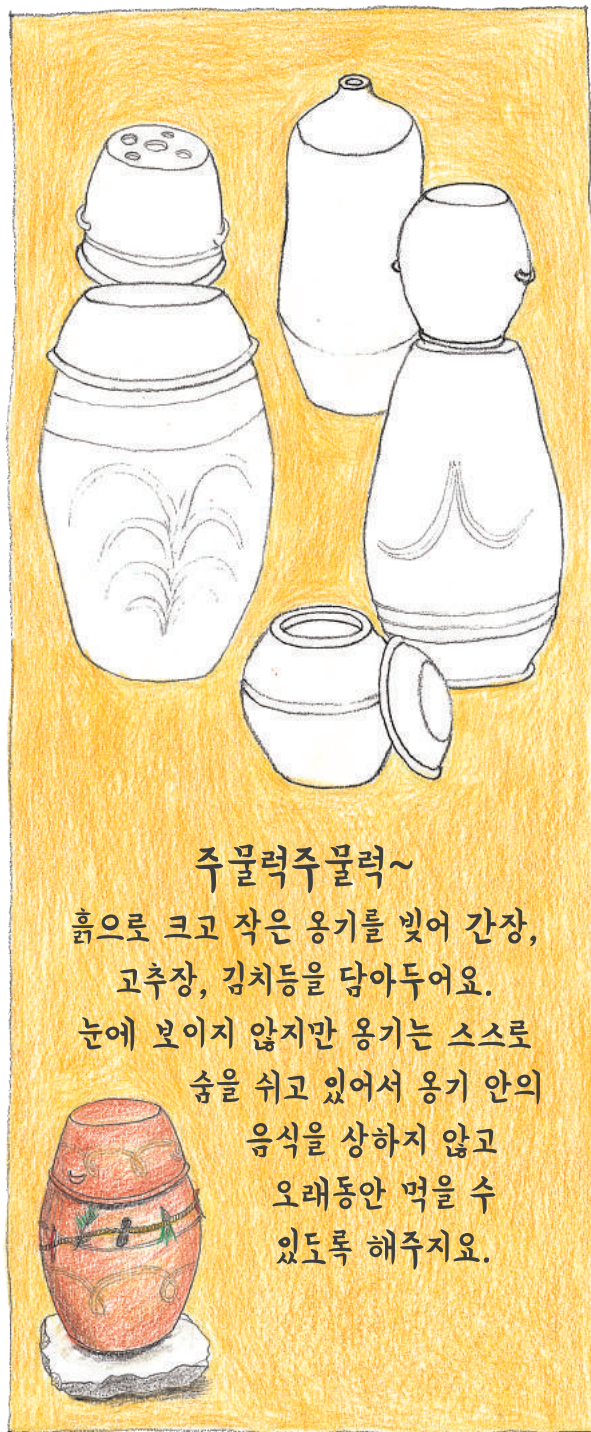
창문과 문에는 닥나무로
만든 한지를 발라
바람이 잘 드나들지요.



쓱쓱쓱쓱~

집 안과 밖의 먼지, 쓰레기를
쓸어내는 '비'를 만들어요.
부드러운 동물 털은 집 안을,
풀이나 나무 말린 것은 집 밖을
청소하는 빗자루로
만들어사용하지요.





주물럭주물럭~

흙으로 크고 작은 용기를 빚어 간장,
고추장, 김치등을 담아두어요.
눈에 보이지 않지만 용기는 스스로
숨을 쉬고 있어서 용기 안의
음식을 상하지 않고
오래동안 먹을 수
있도록 해주지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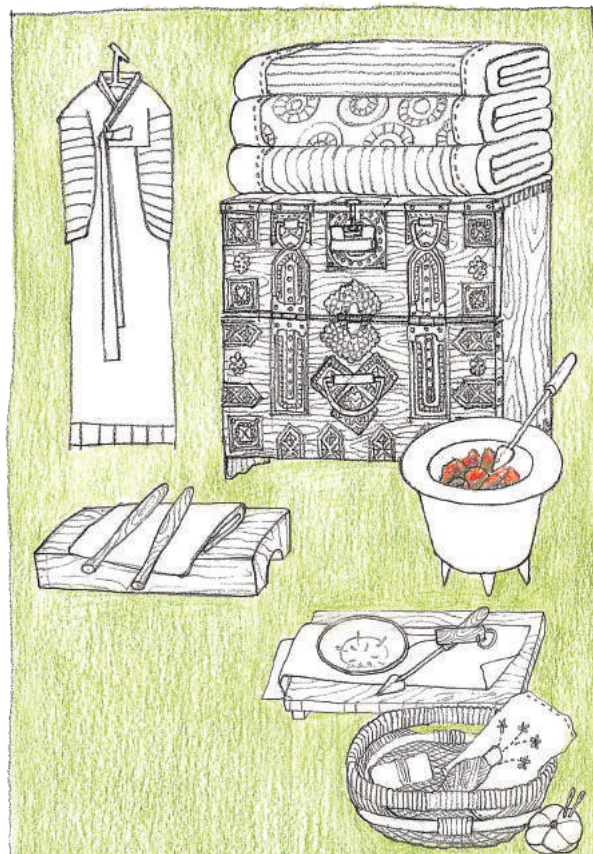


반짝반짝~

숫으로 만든 유기 그릇은 병균을
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어 안전하게
먹을 수 있도록 하였지요.
음식을 먹고 난 뒤에는 암키와를
곱게 부순 것 또는
모래와 함께
지푸라기나 수세미로
닦아 사용하였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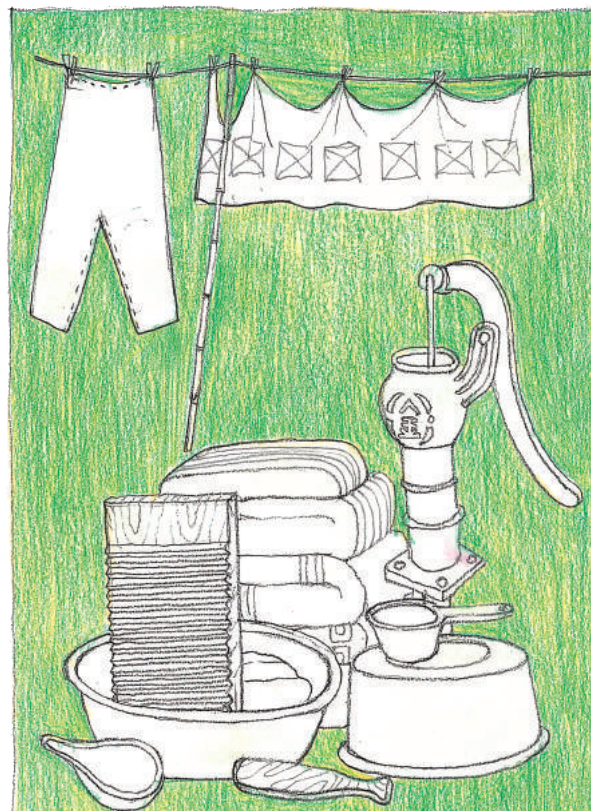
* 지푸라기나 수세미로 닦아 사용하였답니다.





알록달록~

꽃과 나무, 열매, 흙 등으로 색을
곱게 물들인 천을 바느질하여
아름다운 우리 옷 '한복'을 만드어요.
옷 짓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
때문에 새 옷을 갖게
되면 오랫동안
소중히 입으려고
노력했어요.



토닥토닥~ 툇덕툇덕~

더러워진 옷을 빨기 위해 나무나
짚을 태우고 난 재를 물에 풀어
담가두었다가 나무방망이로
두드려요.
빨래를 하고 난
뒤 햇빛에 널면
옷이 하얗게
변했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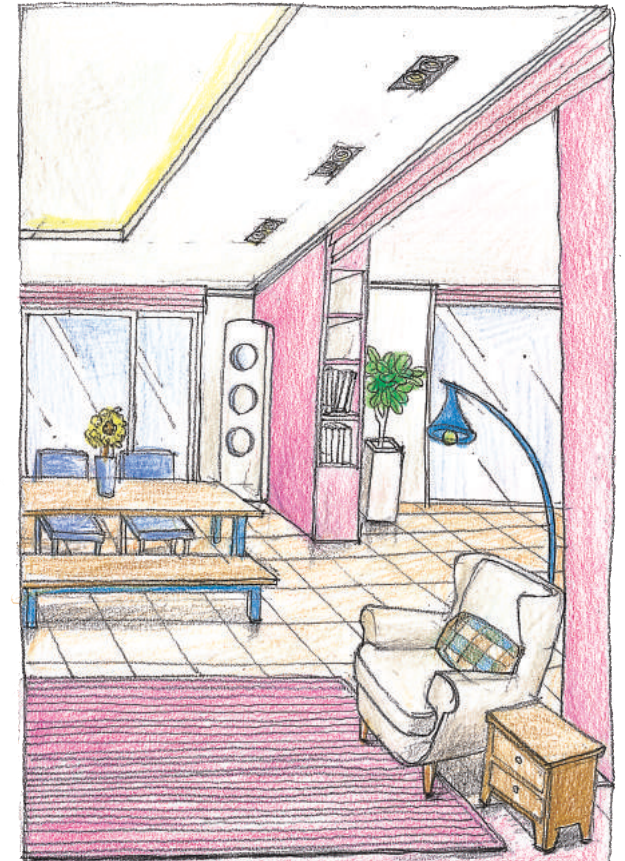


현슬기로운 가정생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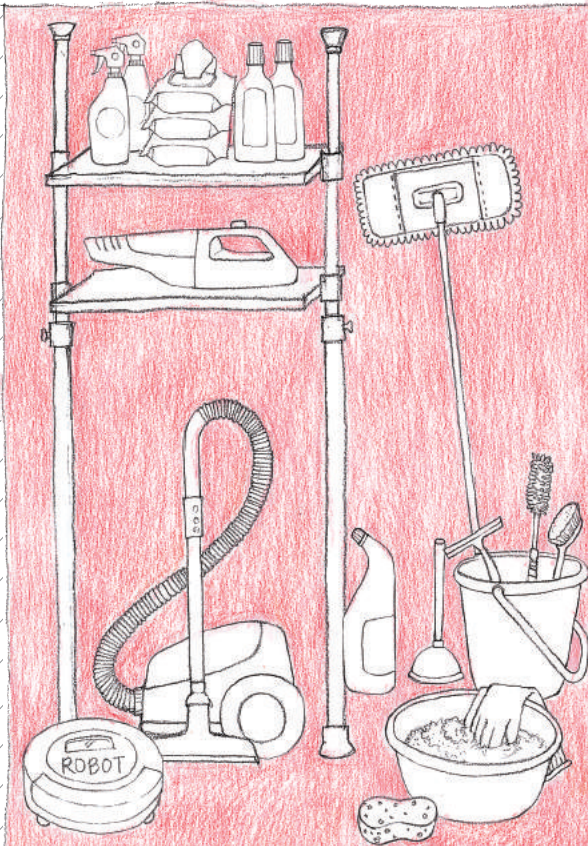
[슬기로운 옛-현 가정생활] recyclable paper 150g/m² printed with SOY INK
design by GREEN PIN, illustration by ray lee

이 제작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며 재생가능한 종이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.



친환경 인증을 받은 천연벽지, 무공해
수용성 페인트, 온돌마루 등을
사용하여 집을 지어요.
새집에 오염물질이 사라지도록
창문과 문을 꼭 닫은 뒤
실내온도를 높여 오염물질을 태우는
'베이킹 아웃'을 해서
새집증후군을
예방하기도 하지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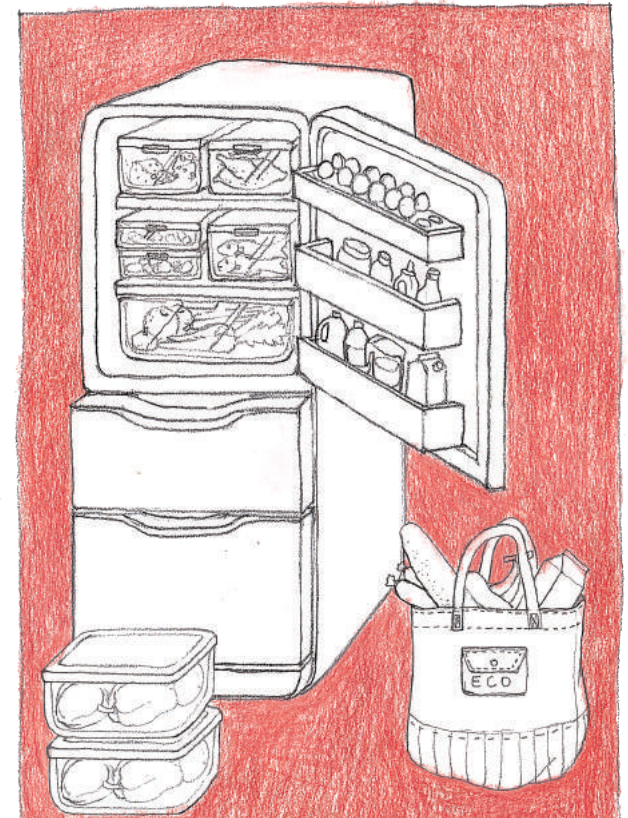




무심코 뽑아 쓰는 물티슈나 합성세제로
청소하기보다 마른걸레와 물걸레로
집 안에 쌓인 먼지를 자주 닦아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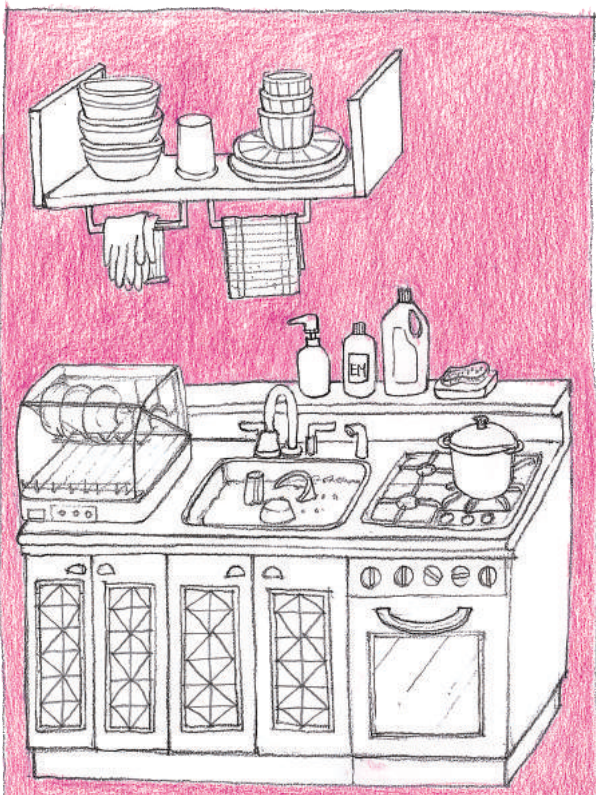


집 안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
난다면 인공 방향제보다
숯을 놓아두고, 다양한
공기정화 식물들을
놓아두면 깨끗한 공기까지
일석이조의 효과를
누릴 수 있어요.



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
그릇들은 500년 동안 썩지 않아요.
또한 뜨거운 음식이나 물에 닿으면 우리
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그릇도
있어요. 도자기 그릇이나
유리로 만들어진 그릇을
사용하면 음식을
더욱 더 안전하게
먹을 수 있겠죠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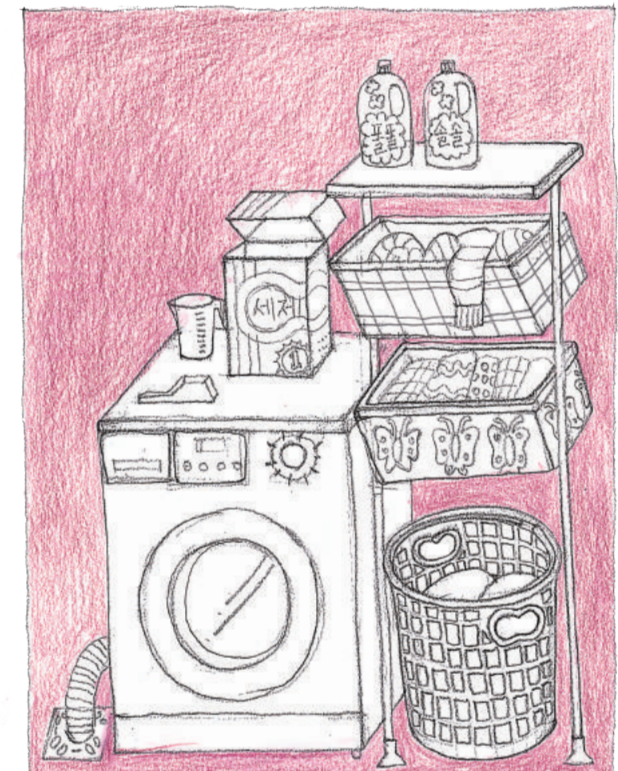




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합성세제 대신 EM용액으로 만든 세제를 사용해 보세요. 기름기 많은 그릇들은 과일껍질을 모아두었다가 닦으면 금세 깨끗해지고요, 물때가 낀 병은 달걀껍질과 굵은 소금, 물을 넣어 흔들면 흔적없이 사라진답니다.



다양한 색과 소재로 공장에서 빠르게 만들어진 옷들을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쉽게 버리기도 하지요. 작아진 옷이나 더이상 입지 않게 된 옷은 기부하거나 플리마켓에서 사고팔며 자원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.



빨래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화학세제들은 옷감을 상하게 하고, 옷감에 남아 우리 피부에 닿으면 과민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. 식초를 사용하면 흰 옷을 더 희게 할 수 있고 옷감도 보호할 수 있어요. 튀김요리를 하고 버리는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비누를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.

